

社說

이주석 道의원에게 바란다

경기도의회 포천시 제2선거구(소흘읍, 내촌면, 가산면, 일동면, 이동면, 화현면)에서 당선돼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주석 의원이 7개 경기도의회 하반기 자치행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장으로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앞으로 포천시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당부한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소관업무는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업무와 소방관련 업무라고 한다. 경기도 공유재산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위원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열악한 소방시설을 확충하고 장비가 갑작스럽게 필요할 때 대비하여 미리미리 준비하는 시스템 구축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경기도의원으로서 포천시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기를 바란다. 그동안 이주석 의원이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서 밝혔듯이 참고 견디고 합의를 살아온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야 한다.

이 의원은 5분 발언에서 포천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1개 도시에 2개 군단사령부와 2개 사단, 7개 여단 그리고 그 예하 부대가 주둔하고 있고 국내최대 규모인 410만평의 미군 영령 사격장과 600만평의 동양최대 승진사격장을 포함해 1천30만평에 달하는 8개 사격장이 있다고 밝혔다.

포천시민은 사격장이 설치된 이후 포탄 폭발로 인해 자신의 눈앞에서 어머니와 형

제·자매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참혹한 광경을 목격해야 하는 등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를 어쩔 수 없는 아픔으로 살아왔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 정부는 지도사격장을 선정하면서 군산시에 3천여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평택시에는 평택지일특별법에 의해 89개 사업에 18조8천여원을 투입할 계획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410만평의 미군 영령사격장을 공여하고 있는 포천지역은 현재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피해가 영원히 해결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보상이나 정책적 지원도 없는 일방적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포천시민은 정부의 이같은 역 차별에 대해 심한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이를 모른 채 하는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포천시를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주석 의원이 이제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장으로 김복문 경기도지사와 자주 접촉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포천시 발전을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특히 도시사 시책추진비가 포천시의 민원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도록 이 의원이 중재역할에 나서야 한다.

지금 포천시에는 예산이 없어 공사를 못하는 현상이 많다. 이를 적극 해소하기를 기대한다.

‘사업부서와 간담회로 사업추진 돕는다’

포천시의회, 시정 주요 현안 추진부서와 간담회

포천시 의회(의장 이종효)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정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추진 부서와 간담회를 통해 해결책 모색에 나서기로 했다. 실제로 포천시의회는 8월13일 공보관광담당관실과 문화체육과와 간담회를 개최했고, 8월21일 농축산과, 산림녹지과에 이어 8월22일에는 건설과, 교통행정과, 8월25일에는 도시과와 수도사업소와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포천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및 중앙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포천시 시정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집행부의 주요사업 추진 부서의 담당 공무원과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점 해결방안을 함께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포천시의회는 8월13일 공보관담당관실과 문화체육과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부적으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경기도와 중앙부처 방문까지

계획하고 그동안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 조상땅 찾아주기 신청 접수

지적 정보센터 전산자료 검색하여 결과 통보

포천시는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및 본인의 소유로 돼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시민들에게 상속관계 및 본인 여부 확인 후 지적 정보센터 전산자료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고 있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이며 첨부서류는 본인인 경우 신분증, 상속인은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 위임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조회범위는 찾고자 하는 대상자

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전국이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경기도 토지소재지 조회 시 즉시(FAX) 처리하고 타 시도 토지소재지 조회시 해당도청으로 우편 송부한다.(문의 포천시청 민원과 538-2142)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주인의식·목적의식 갖고 업무에 집중’

포천경찰서, 선진인류 경찰을 향한 무궁화포럼



포천경찰서는 8월12일 경찰서 4층 강당에서 각 과장, 계(팀)장, 지구대장, 파출소장 등 필수요원을 제외한 전직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진인류 경찰을 향한 무궁화포럼을 개최했다.

포천경찰서(서장 양종렬)는 8월 12일 경찰서 4층 강당에서 각 과장, 계(팀)장, 지구대장, 파출소장 등 필수요원을 제외한 전직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진인류 경찰을 향한 무궁화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무궁화포럼은 ▶자재사고 방지 동영상 시청 ▶업무유공자 표창 수여 ▶기능별 담면현안사항 토론 ▶선진인류 경찰을 향한 경찰서장 훈시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양종렬 서장은 훈시를 통해 “주인의식, 목적의식을 갖고 매사 업무에 있어 최선을 다해 일 해 줄 것을 강조하고, 아울러 다양한 취미활동을 하면서 인생을 멋있게 살아갈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포천지구대 경사 박진수 등 5명에 대해 기능별 업무실적우수 및 법인검거유공에 대한 표창수여식도 가졌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특필기고

‘봉래 양사언의 어머니’



이 의 용 포천시장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인물들은 물론이고 평범한 사람들도 대부분 자신의 어머니 똥(은공)이 뒤에 숨어 있었고 이러한 모성에 덕분으로 자신이 타고난 운명을 넘어서 인물은 더욱 훌륭한 인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

많은 사람이 익히 알고 있는 큰 학자 율곡 이이와 신사임당, 명필 한호(석봉)와 그의 어머니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모르는 사람이 없고 아마도 이분들은 끝없는 화성으로 아들을 훌륭하게 키운 대표적 한국의 어머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두 분보다도 더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으니 그분은 우리 포천의 자랑인 봉래 양사언의 어머니에 대한 내용을 아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다.

이야기는 이렇다. 양사언의 아버지 양 민이 전라도 영평의 사또로 부임해 내려가는 꽃 피는 삼월의 어느 날 어느 촌 고을을 지난 무렵 전날 부인 축하언으로 술을 과음하여 밥을 먹지 못해 배가 무척 고퍼서 밥을 먹고 가기로 했다.

그러나 때가 늦었기라 사람들이 없었다. 이 집 저 집 둘러보던 중에 어느 한 집을 지나게 되는데 한 소녀가 공손하게 나와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 소녀는 신관 사또가 거리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며 집안으로 모시고 부지런히 식사를 지어 올렸다.

소녀의 행실이나 말씨가 어찌나 어른스러우며 예의 바른지 사또는 너무나 기특하게 여겼다.

조반을 잘 먹어먹은 젊은 신관 사또 양 민은 고마움에 대한 보답으로 소매에서 부채 청선(靑簾)과 홍선(紅簾) 두 자루를 꺼내 소녀에게 주게 된다. 그날 전담하기를 소원하여 농담을 섞어 “이 고마움으로 내가 너에게 채단 대신 주는 것이니 어서 받으라.”고 했다.

그런데 채단이라 함은 결혼 전에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보내는 청색 홍색의 옷감을 말하는 것이었다. 갑 갑 놀란 소녀는 안방으로 뛰어가 장롱을 뒤져 금히 홍포를 가져와서 바단에 깔고 靑簾(靑簾), 紅簾(紅簾)을 내려놓으라고 한다. 여러동결한 사또는 왜 그러냐고 묻는다. “백배에 바치는 채단을 어찌 맨손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한다. 두 자루의 부채는 홍포 위에 놓여졌고 소녀는 잘 싸서 안방으로 가지고 들어갔다. 세월이 흘러 사또 양 민이 이런 저런 업무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한 노인이 사또를 뵈자고 찾아왔다.

“몇 년 전 부인할 때 시골집에 들러 아침 식사를 하고 어느 소녀에게 靑簾(靑簾), 紅簾(紅簾) 두 자루를 주고 간 적이 있느냐”고 묻는다. 사또는 조금 생각하다가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말하며 아직도 고맷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노인은 이제야 의문이 풀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말한다. “그러셨군요. 그 여식이 과년한 재떨이인데 그 이후로 시집을 보내려 해도 어느 곳으로도 시집을 안가겠다고 해서 영문을 몰라 이렇게 찾아뵈게 되었습니다.”라고 노인이 말하니 젊은 양 사또는 “그 정성이 지극하게 늘 내 어찌 모른 척 할 수 있겠소. 날 짜를 잡아 아들로 맞겠소.”라고 답하게 된다.

이 소녀가 바로 후에 봉래 양사언의 어머니이다. 정실부인이 죽고 모든 살림살이를 후처인 사언의 어머니가

도맡아 하게 되었고 아들들을 훌륭하게 키웠다. 그러나 아들이 아무리 훌륭하면 뭐하나 서자들인데 이 소설부인의 서러움과 한탄은 적자가 아닌 서자를 낳았다는 것이 한이 되어 마음 깊이 자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소설부인의 꿈은 자기 아들들의 머리에서 서자의 땀방울 때 내는 일이었다. 남편 양 민의 장례 날에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눈물 흘리며 말한다. “양씨 가문에 들어와 아들을 낳았으며, 아들이 재주 있고 총명하며 풍채도 있거늘 힘이 남았다 하여 나라 풍습은 그들에게서 서자의 이름을 버려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장손인 적자에게 물면서 부탁한다. “힘이 또한 이 다음에 서오의 누를 가지고 죽은 후라도 우리 큰 아드님께서는 석 달 복박에 인치 않으실 터이니, 이리되면 그때 가서 내가 낳은 두 아들은 서자 소리를 하며 집안으로 모시고 부지런히 식사를 지어 올린다. 내 이름이 마름을 다진 몸, 무릇을 주지 하오리까 마는 내가 죽은 뒤 사언이 형제한테 서자란 말로 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죽어서도 가까이 영감님 곁에 누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양사언의 어머니는 가슴에 품고 있던 단점을 그녀 자결을 하게 된다. 아들이 그녀를 부름 커안았을 땐 이미 세상 떠난 후였다. 자기 아들을 서자의 명예를 풀이 주고 뜻있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고 싶었던 여인, 죽음으로 부조리한 인간 차별을 타파하고 싶었던 선구자적인 신여성, 이 어머니의 죽음은 양사언이 시대를 초월한 훌륭한 문인(文人)이 되는데 자양분이 되었을 것이다. 그 후 봉래 양사언은 후에 장원급제하여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된다.

봉래 양사언(蓬萊 楊士彦)은 한석봉과 추사 김정희와 더불어 조선 3대 명서(名書家)이자 문인이다. 사언(士彦)의 호가 봉래(蓬萊)로 하게 된 것은 사언(士彦)이 관직에 올라 지금의 철원 사또로 부임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이에 있는 금강산을 자주 찾게 되었고 불교에 관심이 있었던 사언은 금강산의 매력에 흠뻑 젖어 살게 되었다.

여름의 금강산을 봉래산(蓬萊山)이라 한데서 호를 봉래(蓬萊)라 하였다고 한다. 금강산을 노래하고 금강산을 그린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얼마나 금강산을 사랑했으면 자기의 호를 봉래(蓬萊)라 했겠는가. 이분이 태어나고 꿈을 펼쳤던 곳, 가슴 사무치게 노래했던 고향 땅, 거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포천이다.

우리 역사상 자신의 목숨을 희생시켜 아들의 앞길을 열어줬던 가장 고귀한 포천의 어머니가 우리의 어머니이다. 시간을 내서 어머니를 찾아 보자 세상에 계시지 않으면 벌초 길에 성묘를 하며 나의 어머니를 떠올리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나를 찾는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Advertisement for Pocheon Shinmun newspaper,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

Large advertisement for Pocheon Shinmun newspaper, featuring the slogan '언제나 바른뉴스!' and the website 'www.ipcs21.com'. It includes details about the newspaper's focus on local news and subscription information.